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양림동의 크리스마스

13일부터 양림&크리스마스 축제 캐롤 경연·콘서트·역사 탐방 등

온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반짝이는 조명과 트리까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됐다.

양림&크리스마스 축제가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린다.

2016년을 시작으로 민간에서 진행해왔던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는 올해부터 남구가 주최해 더욱 큰 규모로 펼쳐진다.

먼저 첫날 오후 5시에는 양림 오거리에서 18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린다. 트리는 축제 기간 내내 양림동의 불을 밝힌다.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입구에서 일방로 구간과 선교사 묘역 주변에는 크고 작은 트리를 포함한 이색 경관 조명을 만나볼 수 있으며 우일선 선교사 사택과 공예특화거리 주변에는 트리와 연계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양림 오거리에서 무등파크맨션 방향에는 일정 간격으로 스피커 9개가 설치돼 17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할 캐롤송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17일을 시작으로 18일, 20일, 24일(오후 7시~오후 9시), 2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캐롤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17일, 20일, 24일 양림 공예거리 광장, 18일, 25일 양림 오픈스튜디오 앞)

첫날에는 그룹 행복나무, 첼로포유, 코스모스 아코디언 앙상블 등이 무대를 꾸민다. 다음날은 사직동 통기타거리팀이 함께하며 20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과 메조소프라노 가현주, 이중 필 트럼펫 연주자가 공연한다.

크리스마스 의미가 담긴 곡을 선보이는 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양림동 CCC센터에서 소프라노 김아람, 바리톤 손승범,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소프라노 정경자의 무대와 한빛만도린 합주, 강명진의 플룻 연주가 펼쳐지며 노래발자국, 빅맨 싱어즈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팀이 무대를 꾸민다.

이번 양림&크리스마스 축제에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약 두시간 가량 양림동 주민 100여명과 함께하는 '양림 헬로 퍼레이드'에서는 양림동 주민들과 함께 근대의상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퍼레이드에 함께할 수 있다. 근대 의상은 양림 오거리 이벤트 부스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양림동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근대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유진벨기념관, 선교사 묘역,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방기념관 등을 해설사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참가를 원할시 12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양림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전국 가스펠&캐롤송 경연대회'도 열린다. 예선을 거친 10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24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가량 진행된다. 최고상에 300만원, 으뜸상에 100만원, 축복상에 50만원 등 상금도 수여된다. 이밖에 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작가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도자기 오너먼트 만들기',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트리풍경 조형물', '마크라메 조화리스' 등 광주지역 예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양림오거리에 설치된 대형 트리



대상 박준희 작 '고요한 시간 속에서'



최우수상 이화영 작 '얼씨구~좋다'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박준희 작가 대상

최우수상 이화영 작가 수상

제 34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서 박준희(광주) 작가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가 주관한 이번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는 모두 276점이 출품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특선 58점, 입선 94점 등 모두 157점이 상을 받았다.

주최측은 대한민국 한국화·문인화·서예 특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기존의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한국화와 전통미술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공모

했다.

최우수상은 전통미술 부문의 이화영(광주) 작가 작품 '얼씨구~좋다'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한국화 부문 박진현(광주) 작가의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전통미술 부문 김지우(무안) 작가의 '가을도'와 손수필(광주) 작가의 '장생도(염림)'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리며 입장작 전시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예총 백련·지호 갤러리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의 종교와 삶과 문화를 엿본다

ACC 도서관 추천 도서 서비스... 고대부터 현대까지 40여권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싱가포르의 절과 사원', '미얀마의 종교와 사회'...

위에 언급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아시아 각국의 종교와 인간과 관련된 책들이다.

아시아의 종교와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12월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 (북 큐레이션) 주제를 '아시아 종교와 명절'로 정했다. ACC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시아 종교

와 관련된 문화예술 도서 40여 권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도서추천서비스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중앙아시아의 종교 회화'와 조각을 담은 연구 도록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인간과 종교 그리고 과학과 사회의 다채로운 모습들이 교차하는 신간 '동아시아 속 종교와 과학의 만남'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둔 책 50여 권도 독자에게 선보인다. 최근 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발달장애인 배우이자



화가인 정은혜의 그림에세이 '은혜씨의 포옹'은 장애를 딛고 그만의 예술과 삶을 펼쳐가는 은혜씨의 남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등 예술가들이 건네는 따스하면서도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도 준비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름다운 동행' 골드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6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골드필오케스트라의 제 3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행'이 16일 오후 7시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총 3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무대에 오르며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를 선보인다.

공연의 지휘는 골드필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인 이창훈이 맡으며 소프라노 나혜숙, 테너 이상화, 부부 플루티스트인 변성호, 배혜경이 함께한다.

무대에는 먼저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올리고 나혜숙이 아당의 '오 거룩한 밤'을 노래한다. 이어 이상화가 아담스의 '거룩한 성'을 선보인 뒤 변성호와 배혜경이 치마로사의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

나혜숙과 이상화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이중창'을 노래하고 마지막으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를 선보이며 막을 내린다.

골드필오케스트라는 후배 음악인들의 희망이



골드필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되길 원하는 50세 이상의 관현악 전공자들이 모여 2020년 창단한 단체로, 국공립 교향악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됐다.

시립교향악단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임을 한 원

로음악인들인 단원들은 매년 정기공연, 초청공연 등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전석초대. 010-3625-5115.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 정시공모

27억7000만원 규모... 2023년1월25일~2월3일 온라인접수

전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 정시공모'를 진행한다.

총 27억 7000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 사업은 문화예술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문화예술육성, 창작공간활용, 공연작품제작, 청년예술가활동, 자율기획형(모두의 예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역문화육성사업 참여 단체의 사업역량 강화와 집중사업 진입 유도를 위해 지난해 대비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됐으며 문화예술창작활동 발굴과 지원영역 확장을 위해 주제, 형식, 시기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자율기획형(모두의 예술)' 공모 사업도 신설됐다.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

단체 진입과 단계별 육성을 위한 '예비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권역별 3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수시로 진행해 사업 신청 접근성도 높인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개인·단체 자부담 편성 의무는 없으며 개인은 1년, 단체는 4년(지역문화예술육성은 3년)연속 지원에 대해 휴식년제도 적용된다.

전남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진행된다. 문의 061-260-5824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스트리트댄서·웹툰 작가도 '예술활동증명' 가능

문광부,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웹소설·뮤직비디오 등 추가

예술활동 증명 장르가 추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활동 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퓌)', '그림책'이다. 또한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도 추가됐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해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